

해남 솔라시도에 내년 세계 첫 메타버스 정원 열린다

산이면 구성리 일대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9개 테마 16만평 규모 수목원·미술관 등 복합문화공간...상반기 가상·현실세계 동시 오픈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어린이 정원이 들어선다.

해남군에 따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 중인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인 산이정원이 내년 상반기 임시 개장한다. 산이정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약 50만㎡(16만평)의 면적에 조성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에 포커스를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 가상과 현실세계를 동시에 오픈하는 세계 최초 정원으로 눈길을 끈다.

'산(자연)이 곧 정원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산이정원의 명칭을 부여, 정원도시의 비전을 가진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대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산이정원은 수목원과 산책로뿐만 아니라 미술관, 카페,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 모든 세대가 정원과 자연을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지난 4월에는 전남도, 해남군, 산이면 주민과 함께

참가, 황칠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등 2천 50그루의 탄소 저감 수종을 심는 '약속의 숲 식목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산이정원은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과 조형물이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임시개장을 목표로 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서는 신(新) 환경정원도시를 목표로 기후변화대응도시, 탄소중립도시, 녹색산업도시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이면 구성리의 구성구경(九星九景)을 주제로, 9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탄소중립의 시작 해남을 대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 '산이정원'이 조성된다. <해남군 제공>

표하는 산이정원은 솔라시도의 꿈과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다"며 "산이정원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해 가상과 현실세계 동시에 오픈하는 세계 최초의 정원으로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과열 조짐

다음달 22일 대의원 투표...후보 7명 출마 예고·합중연횡도

오는 12월 22일 치러지는 목포시체육회장 선거가 벌써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설까지 감지되고 있어 선관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권은 산하 46개 종목단체 가운데 관리단체 1개를 제외한 45개 단체 회장이 당연직으로 투표권이 있으며 각 종목별 대의원 수에 따라 랜덤 방식으로 뽑힌 3~4명의 대의원에 투표권이 부여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김성대 전 목포시 야구협회장, 강준길 목포시축구협회장, 김광영 전 목포시축구협회장, 김성문 목포시체육회 부회장, 박성열 목포시프렐협회장, 이경훈 전남도체육회 이사, 송주용 전 전남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출마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지자체 인구 10만명에서 30만명 이내의 경우 150명 이상 구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당연직으로 투표권이 주어질 회장들에게 이미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

설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체육회장 선거를 운영하며 금품을 받은 이는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단, 금품·물품가액이 100만원 이상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한다) 부과되고 금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사·군부 체육회 기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목포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되고 후보자의 기탁금은 1000만원이며 20%를 득표하지 못하면 환수돼 합중연횡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매표설과 관련하여는 현재까지 제보가 들어온 것은 입후보자가 상대로 선거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선출된 목포시 체육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내년에 제 10회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열리기 때문에 선거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미모·향기·수익성 갖춘 해남산 '비단향꽃무'

저온에 강해 난방비 60% 절감 0.1ha당 1200만원 수익 2020년 보급...6개농 2.5ha 재배

해남군에서 꽃봉오리마다 향기를 가득 품은 스토크 꽃 수확이 한창이다.

저온성 화훼 품종인 스토크는 10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해 1단(6개 묶음)에 상품기준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0.1ha당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해남에서는 2020년 저온성 품종 개발을 통해 보급을 시작, 현재 6농가에서 2.5ha가량 재배되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기존 화훼류 대비 난방비가 60%가량 절감돼 경영비 절감 및 CO₂ 배출을 줄여 저탄소 농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스토크는 추위에 강하고 주간 15~20도, 야간 8~10도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다.

해남의 풍부한 일조량과 온난한 기후조건을 이용, 가을에서 봄까지 재배작형을 세분화해 노동력을 분산하고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져 품질 좋은 스토크를 생산, 출하하고 있다.

스토크는 비단향꽃무라고도 부르며, 다양한 색깔의 홑꽃과 겹꽃이 있고 향기가 좋은 것이 특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리적특성을 이용한 저비용·저탄소 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화훼 소득원 발굴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한 화훼농가에서 수확한 스토크 꽃을 선별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목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공모

내년 시행...다음달 8~9일 접수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선정에 마치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광·체험상품, 기념품, 목포사랑상품권, 홍어, 조기, 김, 건어물 세트(별치포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사회적 경제기업·청년기업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공급업체 선정 기준 등을 심의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목포시내에 생산 기반을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면 누구든 공모에 참여해 목포의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답례품목, 신청자격,

구비서류, 평가항목 등을 공고하고 12월 8~9일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목포시청 세정과(민원동 2층)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중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 공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양수산사업' 조기 공모

신안군, 36종 다음달 22일까지

신안군이 2023년 해양수산사업을 한 달여 앞당겨 오는 12월22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해양수산사업 공모는 정부예산 정책인 조 기집행 기조에 맞춰 내년도 추진이 확정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진행된 사전 공개모집으로, 총 36종에 231억원 규모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결과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신안', '살고싶은 섬 신안'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부서 또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02)에 문의하면 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 '농산물가공유통업' 비전 공유



우승희 영암군수가 가공유통사업가 11명과 '영암군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주제로 제11차 목요대화를 진행했다. <영암군 제공>

군, 11번째 목요대화 진행

영암군은 지난 24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유통사업가 11명과 '영암군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주제로 제11차 목요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는 영암군수와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업해양정책과 등 농업분야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든 것을 가공하여 최고의 가치를 키우자'를 주제로 영암군 농산물가공유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군의 농산물가공유통 현황과 추진 지원사업 발표에 이어 펼쳐진 자유발언에서는 참석자 가공유

통사업가들이 농산물 가공·유통 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농정의 방향이 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으로 방향을 꺾는 게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업그레이드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산물 가공유통사업가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 지도읍에 국공립 어린이집 준공



신안 지도읍에 국공립 신안북부하어린이집이 새로 준공됐다. <사진>

신안북부하어린이집은 2020년 5월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하나 어린이집 50호로 최종 선정돼 신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4월 완공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하나금융그룹에서 6억 643만원을 지원했고, 국도비 1억 9492만원 포함 총 8억 6634만원 사업비를 투입했다. 지상 1층의 연면적 299㎡, 규모로 보육실 4개와 독서계단, 플레잉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